교환학생 보고서

이　　름	한 글	김보미	소속(학부/과)	토목공학과
파견 학기	2019년 봄학기		파견 국가	독일
파견 대학	하일브론응용과학대학			

❖ 경험보고서는 이후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성실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대학생활 중의 여러 활동을 하며 쌓인 목적이자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교환학생을 결심했습니다. 다양한 문화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문화를 배우고 싶어서 지원했던 국제교류도우미를 활동을 통해 여러 국가의 친구들과 교류하던 중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문화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또한 전공공부를 하며 직접 다른 나라 수도시설 등을 직접 보고 알아보고 싶었고,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독일에서 살아보기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들을 대학생일 때가 아니면 못 해 볼 것이란 생각이 드는 순간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교환학생이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와 꼭 가고 싶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합격 이후 이메일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메일로 절차를 밟는 사이트나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메일을 자주 체크하여 서류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이트에 등록할 때는 보내준 이메일의 내용을 참고하여 빈칸을 채우시면 되고, 서류 절차는 주어진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간단한 여권사진파일 첨부하는 것부터 CV 파일 첨부, 국제교류교육원에 확인 싸인 받은 후 첨부 및 프린트하여 교류원에 제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비자발급은 상대교에 도착하면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친절히 도와줍니다. 항공권은 저는 김해 프랑크푸르트 경유하는 왕복티켓 샀습니다. 국제학생증 isic 이용하셔서 키세스 항공 이용하시면 편도 최저 33만원도 되었던 거 같습니다. 수강신청 또한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친절히 알려주며, 대략만 어떤 거 들을지 생각하고 가셔서 가서 들어보고 다른 과목으로 바꿀 수 있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기숙사 신청은 한국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해주시니 기숙사 관련해서도 이메일로 옵니다.
네이버 이메일을 사용해도 되지만 될 수 있으면 gmail사용을 추천드립니다.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캠퍼스는 하일브론 안에 존하임, 유로파 두군데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도 하일브론 캠퍼스가 있지만 교환학생들은 하일브론 안에서만 수업을 듣습니다. 규모는 금오공대와 같거나 작습니다. 하일브론 중심지에서 버스로 15분 정도 떨어져 있으며 막스 기숙사에서는 걸어서 5분~10분정도 걸립니다. 3~5월에는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하루동안 장대비, 해, 돌풍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날씨가 변덕스럽고 꽤 추울 때도 있기 때문에 너무 여름옷 겨울옷 모두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신 패딩은 경량패딩으로 가져

가셔야 중간 중간 추울 때 입기도 좋고 돌아올 때 짐 걱정도 덜합니다. 6~7월은 아주 햇볕이 뜨겁습니다. 8월에 제가 돌아올 때쯤에는 갑자기 추워져 긴 팔 긴 바지를 입고 다니다가 돌아왔습니다. 해가 뜨겁던 6~7월엔 해가 떠 있는 시간도 길어져 10시에도 어둡지 않았습니다. 존하임 캠퍼스에는 에어컨 선풍기 없는 강의실이 대부분이라 찜통에서 수업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물론 기숙사에도 라디에이터는 있지만 에어컨 선풍기는 없습니다. 그래도 기숙사 내에서는 버틸만한 정도여서 창문과 문을 다 열어 놓고 지냈습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저의 경우에는 독일어, 영어, 전공과목 두개(Logistic System Planning with Simulation, Micro controller)를 들었습니다. 독일어는 처음 시작할 때 반을 3개로 나누는데 보드판에 자기 이름을 쓰는 식으로 하여 정하였습니다. Logistic System Planning with Simulation 이 과목은 물류관리를 하는 프로그램 등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원래 독일어 수업인데 인커밍학생이 있어서 영어로 진행하셨습니다. 수업자체는 재밌으나 한 학기 전체 과제가 수업내용에 비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이나 조교님이 질문도 잘 받아주시고 친절히 도와주셔서 보고서 제출 할 수 있었습니다. (들은 얘기로 교수님들이 인커밍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무조건 영어 쓰신다고 듣기도 했지만 정말 그러셨습니다.) 사실상 수업만 듣고 과제 제출만 하면 되는 과목이었습니다. Micro controller 이 과목은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하나의 장치에 대해 이론도 배우고 프로그래밍 실습도 하는 과목입니다. 기계공학과이거나 전자과라서 배워본 사람들한테 좋은 과목입니다. 아니라면 과제가 되게 어려울 것입니다. 성적은 과제 제출과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험은 예시 문제들을 알려주고 오픈북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또한 성적도 후하게 주십니다. 독일 교수님들이 대체적으로 인커밍들에게 잘해주시고 배려해주십니다.

s-plan은 시간표 사이트로 휴일이나 휴강, 시험 등을 체크하기 좋습니다. ilias에서 전반적으로 수업자료나 수업 관련 내용들을 다룹니다. 하일브론 대학교로 통해서 들어가는 학교 홈페이지에서는 시험 등록, 취소를 다룹니다.

european transport marketing이란 과목은 인텐시브 과정으로 쾰른에 가서 세미나처럼 5일정도 듣는 과목인데, 신청내용이 이메일로 오고 선착순이기도 하여 이메일 확인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서 세미나 듣고 발표만 하면 그 학기 수업은 끝이고 성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번 학기는 경영만 받아줬던 거 같습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기숙사는 케네디와 막스가 있었습니다. 케네디와 막스는 거리가 버스로 3개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케네디 건물을 폐쇄하고 판다고 하여 막스와 새로 문을 연 중심지 근처 기숙사 2개가 될 거라 들었습니다. 중심지 근처 기숙사는 아직 가보지 못하였고 2학기에 오는 학생들 또한 배정 되지 않아 막스만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기숙사 관련해서 메일이 오기 때문에 잘 파악하고 바로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첫 달 기숙사비 내는 기간이라고 메일이 오는데 외국은행이라 전산 상 시간이 며칠 걸리기 때문에 이메일 보고 바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기업은행을 이용하였는데 어플을 통해 돈을 보냈고 혹시나 하여 언제쯤 도착하는지 등을 전하로 물어보니 외국으로 넘어갈 때 직접 전화도 주시고 비교적 빨리 갔던 것 같습니다. (수수료 적게 드는 내용이 중요한데 카카오뱅크를 이용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수수료가 정해져 있고 저렴합니다. otp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독일 가면 비자 만든다고 큰돈을 보내야할 일도 있기에 돈이 클수록 수수료도 많이 들기 때문에 추천 드리는 겁니다.) 기숙사비 막스 27은 2인실을 기준으로 한 달에 297.5입니다. 보증금은 공통적으로 450유로입니다.

막스 31은 리모델링 안한 건물이라 훨씬 저렴하다고 들었습니다.
생활비는 가면 비자 받기 위해 블락계좌를 만드는데 처음에 큰 돈을 묶어놓고 매달 얼마씩 받는 것입니다. 19년도까지는 735*6을 하여 처음에 4410유로를 넣으면 달마다 720유로씩 나왔으나 내년부터 비용이 올라 처음에 6500유로를 넣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720유로 받으면 여행을 가지 않는 이상 생활하는데 여유 있는 금액입니다. 한 달에 한번 여행가면 한국 돈도 조금 포함하여 살짝 빠듯합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처음 가면 인터내셔널 오피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시는데 그 부분만 잘 듣고 따라가면 비자, 학사, 기숙사 등은 문제없습니다. 고지해 주는 날짜를 기록해놓고 알람을 맞춰놓는 것이 시험 등록기간 등 놓치면 안 되는 날짜를 기억하기에 좋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매주 토요일에 하이델베르그와 슈투트가르트를 각각 5유로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저렴한 가격에 설명도 들으며 다녀올 수 있어서 좋은 기회입니다. 하이델베르그의 경우 역사를 설명해주며, 점심은 하이델베르그의 멘자에서 멘자카드로 먹을 수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의 경우 메르세데스 벤츠박물관을 갔다가 시내 중심지에 다시 내려주어 점심도 먹고 둘러볼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박물관 같은 경우는 큰 규모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역 역사도 알 수 있어 매우 유익하고 재밌는 곳이며 접근하기도 힘든 위치이기에 같이 갈 때 다녀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메일을 등록해 놓으면 그 이메일로 매주 화요일에 그 주에 무슨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거나,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신청 사이트를 고지해 주기 때문에 잘 확인 했다가 참가하는 것이 혼자 해보지 못하는 활동을 하거나 활동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캠퍼스는 규모가 크지는 않았으나 도서관, 프린트실, 멘자(학식당)등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도서관은 보통 고등학교 도서실 정도로 크기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독일학생들이 팀 프로젝트나 공부하기 위해 주로 멘자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저도 그렇게 사용하였습니다. 프린트는 한국 대학교의 방식처럼 컴퓨터에서 프린트할 내용을 아이디에 담고, 프린트기에 로그인하여 뽑는 방식으로 멘자 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바로 인식도 되어 편하게 이용 할 수 있었습니다. 프린트 하는 비용은 학생증을 만들 때 등록비로 72유로를 내는데 그러면 프린트 할 수 있는 비용을 40유로 정도 줬습니다. 프린트 비용이 되게 저렴하였기에 책 한권 분량의 프린트를 한 저도 담겨있던 비용을 절반이상 남겼을 정도로 다 못쓰고 옵니다. 멘자는 학생 식당인데 담는 만큼 무게에 따라 비용이 책정됩니다. 가끔 디저트 류, 스프는 따로 비용이 추가됩니다. 멘자 카드는 기계에서 충전해서 식당요금이나 세탁할 때 사용되는데 세탁 비는 한번에 1.7유로씩입니다. 카드로 충전 비용을 지불하면 20유로 50유로 등 큰 단위만 가능합니다.

제가 본 동아리들은 주로 운동 동아리들이었습니다. 보더링, 파쿠르, 살사댄스, 요가, 농구 동아리 등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보더링 동아리는 하일브론에 하나 있는 실내 암벽 등반하는 곳에서, 학생할인을 하여 가장 저렴한 월요일에 모여서, 주장 같은 학생이 처음 온 친구들에게 방법이나 규칙, 시설들을 알려주고 각자 연습하다가 어려운 코스를 물어보면 시범 보여주어 도와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시설 내에 하일브론 대학교 학생들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신발들도 보관되어 있어 따로 빌리지 않아도 되어 더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였습니다. 파쿠르 같은 경우는 학생이 아닌 강사가 가르쳐 준다고 들었습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인터내셔널 오피스를 비롯한 교수님들 사무실, 하우스 마스터의 사무실이 열려있는 시간은 요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사무실 앞에 있는 머무는 시간을 메모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키를 방안에 놓고 오거나 잃어버렸을 때 하우스 마스터가 있다면 무료로 열어주고 잃어버린 경우 카드 복사 비용만 받지만 하우스 마스터가 없는 시간대에 일이 발생하면 다른 기사를 불러 해결하라고 하기때문에 출장비 포함하여 적게는 35유로 많게는 50유로까지 쓰게 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잘 아시겠지만 국제학생증isic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을 몇 번 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무료로 만들 때 만들어 간다면 한두 번의 할인도 크게 느껴집니다. 항공권 살 때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여행할 때 하일브론 학생증, 국제학생증 둘 다 내밀면 하나는 할인 됩니다. 독일비자를 같이 보이는 것도 좋습니다.

술집보다 홈파티를 즐겨하며 소수끼리 해도 더 돈독해져 좋았고 큰 홈파티의 경우 다양한 친구들을 알게 되고 다양한 게임과 문화, 얘기를 즐길 수 있어 각각의 매력이 있습니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아도, 혹은 조금만 마셔도 같이 즐길 수 있으니 초대되면 부담스럽게 생각지 않고 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한국이 아닌 외국 학교에서 공부하는 만큼 그 나라의 문화를 느끼고 다양한 경험을 노력하였고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원래 전공이 아닌 타전공의 평소 들어보고 싶었던 수업을 들어 볼 수도 있었고, 본 전공에 관련된 외국 사례들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 시야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본 전공으로 교환학생을 가서 기존의 학교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실험이나 심화된 내용 등을 배워도 좋았을 거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본 전공으로 다녀오던, 타 전공으로 다녀오던 경험 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다른 문화에 적응한다는 자체가 좋았기에 교환학생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